

‘아신전’ 전지현 “김은희 작가팬…킹덤 좀비라도 말고 싶었다”

‘킹덤: 아신전’ 제작발표회 온라인 생중계

김은희 작가 “전지현 두고 시나리오 써”

‘킹덤’ 시즌2 엔딩에 예고 없이 짧게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던 전지현이 조선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생사초의 비밀을 간직한 미스터리한 인물 아신으로 돌아와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다.

20일 ‘킹덤: 아신전’ 제작발표회가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주연 배우 전지현을 비롯해 박병은, 김시아, 김뢰하, 구교환과 김성훈 PD, 김은희 작가가 참석했다.

‘킹덤: 아신전’은 조선을 뒤덮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인 생사초와 아신의 이야기를 담은 ‘킹덤’ 시리즈의 스페셜 에피소드다. ‘킹덤’ 시즌2 말미에 등장해 공금증을 낳았던 아신의 정체와 생사초에 얽힌 비밀과 기원이 밝혀진다는 소식이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백 년 넘게 출입이 금지된 폐사군의 일대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던 성저야인 아신은 우연히 생사초를 발견하며 거센 운명의 소용

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그녀가 겪게 될 고초와 그녀와 생사초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지현이 연기한 아신은 조선의 북쪽, 압록강 국경 근처에서 살아가는 성저야인으로 출입이 금지된 폐사군의 숲에서 우연히 생사초의 비밀이 담긴 벽화를 발견하고, 가족이 기거하던 부락이 습격을 당하며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다.

전지현은 “워낙 킹덤 시리즈와 김은희 작가 팬이다.

김은희 작가님을 사석에서 따로 뵈었을 때 킹덤의 좀비로라도 나오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큰 역할을 주셔서 감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저야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성 밑에 사는 아인을 뜻한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핏박과 멸시를 받은 인물이다”고 소개했다.

‘킹덤’ 시즌2 말미에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킹덤의 세계관이 무한 확장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 시작을 내가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미소 지었다.

김은희 작가는 전지현에게 역할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로맨틱 코미디를 많이 떠올리기도 하는데 암살 등에서 어두움과 아픔을 간직한 캐릭터를 연기한 전지현이 멋있었다”며 “아신에 전지현보다 딱 맞는 배우가 있을까 싶다.

무사 같은 느낌이 있었으면 했고,



전지현을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답했다.

‘풍류대장-힉한 소리꾼들의 전쟁’ 9월 첫방송

대한민국 최초 국악 경연 프로그램



JTBC 새 예능 ‘풍류대장’에 출연하는 MC 전현무와 심사위원 김중진, 이적, 박정현, 성시경, 송가인, ‘2PM’ 우영, ‘마마무’ 솔라. (사진=JTBC 제공)

JTBC 새 예능 ‘풍류대장-힉한 소리꾼들의 전쟁’이 오는 9월 첫 방송된다.

20일 JTBC에 따르면 ‘풍류대장’의 심사위원으로 김중진, 이적, 박정현, 성시경, 송가인, ‘2PM’ 우영, ‘마마무’ 솔라가 출연한다.

‘풍류대장’은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국악이 가진 맛과 매력을 선사하는 대한

민국 최초의 국악 경연 프로그램이다. ‘융합한 솔로 육아-내가 키운다’, ‘캠싱캠핑’의 황교진 CP가 기획을 맡는다.

경연에는 국악계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국악과 대중음악의 크로스오버로 ‘희한하게 익숙하지만 아름답게 낯선’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매력 넘치는 퍼포먼스로 소리꾼들의 에너지를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며 진짜 ‘K-흥’을 각인시킬 전망이다. 늘 줄 아는 소리꾼들 사이에서도 가장 풍류 넘치는 모습으로 ‘풍류대장’ 자리에 오를 사람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풍류대장’은 전현무가 MC를 맡는다.

‘히든싱어’, ‘팬텀싱어’, ‘슈퍼밴드’ 시리즈로 JTBC 음악 예능과의 인연이 깊은 전현무는 탁월한 진행능력부터 특유의 흥까지 음악 예능에 최적화된 MC로서 현장의 열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중진, 이적, 박정현, 성시경, 송가인, ‘2PM’ 우영, ‘마마무’ 솔라가 출연한다.

한국 대중음악계의 레전드 김중진, 깊은 감성의 전재 아티스트 이적, 소울을 노래하는 알앤비 여제 박정현, 발라드 황태자 성시경이 프로그램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여기에 판소리 경력 20년의 신 국민 가수 송가인, 퍼포먼스 장인 ‘2PM’ 우영, K팝의 현주소를 짚어줄 아이돌 대표 ‘마마무’ 솔라가 젊은 세대의 ‘힉한’ 감성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나이와 음악 장르를 불문한 심사위원들의 만남과 그들이 보여줄 시너지는 참가자들이 보여줄 무대에 이어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2PM, 5년 전 도쿄돔 약속 지킨다…9월 日 신보 발매

오는 9월 일본…새 미니 앨범 발매

그들 ‘2PM’이 오는 9월 29일 일본에서 새 미니 앨범 ‘WITH ME AGAIN’(위드 미 어게인)을 선보인다.

JYP엔터테인먼트는 20일 2PM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에 영상 ‘2PM is BACK’을 공개하고 일본 활동 소식을 알렸다.

영상에는 2016년 10월 약 10만 관객을 불러모은 일본 도쿄돔 콘서트에서 대표곡 ‘I’ll Be Back’(아일 비 백)을 부르며 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2PM 모습과 함께 ‘2PM is

BACK 2021. 9. 29 Mini Album WITH ME AGAIN’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앞서 2PM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정규 7집 ‘MUST’(머스트)를 발매 당일 기준 일본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에 올리며 일본 내 인기를 재확인했다.

이달 3일과 4일엔 현지 최대 레코드숍인 타워레코드 데일리 세일즈 차트 정상에 올랐고, 5일엔 전 집포 종합 앨범 주간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PM은 현재 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끝내고 5년 만에 전 멤버가 모여 활동 중이다. 새 앨범 ‘머스트’는 이달 12일 기준 누적 판매량 12만1220장(가온차트 출고량 기준) 달성했다. 싱가포르·스웨덴 등 해외 20개 나라 아이튠즈 앨범 차트 TOP 10에 오르기도 했다.

BTS가 BTS 이겼다…빌보드 1위·통산 13번째

10개월 간 5곡 1위 마이클 잭슨 이후 최단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또 한 번 역사를 썼다.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PTD)가 ‘버터’(Butter)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미국 빌보드는 19일(현지 시각) BTS가 지난 9일 발표한 새 노래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가 7주 연속 1위를 달리던 BTS의 ‘버터’(Butter)를 밀어내고 ‘핫 100’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BTS 노래가 8주 연속 ‘핫 100’ 1위를 지킨 것이다. 연말이 발표된 두 곡이 연속해서 1위에 오른 건 2018년 드레이크 이후 3년 만이다.

‘버터’는 7위로 내려갔다.

BTS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버터”의 바통을 이어받아 1위를 차지한 ‘퍼미션 투 댄스’, 두 곡 모두 1위로 차트 데뷔라니”라며 기쁨을 전했다.

BTS가 ‘핫 100’ 1위에 오른 건 통산 13번째다.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정상을 차지했던 ‘다이너마이트’가 3회, 피쳐링에 참여한 ‘새비지 러브’ 리믹스 버전 1회, 앨범 ‘BE’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 1회, ‘버터’ 7회, ‘퍼미션 투 댄스’ 1회다. ‘다이너마이트’가 1위에 오른 게 지난해 9월 첫 주차로, 약 10개월 만에 이같은 기록을 쓴 셈이다.

이 기록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이후 최단 기록이다. 잭슨은 1987~88년 9개월 2주 간 ‘메드’ 앨범에 수록된 노래 5곡을 빌보드 정상에 올려놨다.

비틀스는 1964년 6개월 간 5곡을 1위에 올려놨다 이 부문 최고 기록을 갖고 있다.

CGV, 브레이브걸스 첫 팬미팅 ‘썸머 퀸 파티’ 생중계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첫 번째 팬미팅을 극장의 대형 스크린과 생생한 사운드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CGV 왕십리·광주터미널 등 전국 12개 극장 생중계

CGV는 25일 열리는 브레이브걸스의 첫 팬미팅 ‘썸머 퀸 파티’(SUMMER QUEEN PARTY) 공연 실황을 극장 단독으로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팬미팅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진행하게 됐다. 브레이브걸스는 역주행 신화를 이룬 ‘Rollin’(롤린)을 비롯해 ‘운전만 해’(We Ride), ‘치맛바람’(Chi Mat Ba Ram) 등을 연속 히트 시킨 걸그룹으로 이번 팬미팅 생중계에 많은 팬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팬미팅 공연 실황은 CGV 왕십리, 강남, 영등포, 소공동, 인천, 원주, 수원, 안산, 대전, 센텀시티, 울산삼산, 광주

터미널 등 전국 12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지며 티켓가는 4만6000원이다.

CGV는 이번 팬미팅 생중계를 기념해 브레이브걸스 단체 사진이 담겨있는 사인 포스터를 관람객 전원에게 준다. 또 고객들을 위해 포토플레이 제작이 가능한 멤버별 시크릿 컷도 제공한다.

조진호 콘텐츠기획 담당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 이번 공연의 생중계를 전격 확정했다”며 “극장의 대형 스크린과 퀄리티 좋은 사운드로 공연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5세 관람가로 돌아왔다…‘킬러의 보디가드2’ 28일 개봉

지난 6월 개봉한 ‘킬러의 보디가드2’의 북미 버전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2: 킬러의 와이프’가 오는 28일 개봉을 확정했다.

‘킬러의 보디가드2: 킬러의 와이프’는 지난 6월 개봉한 ‘킬러의 보디가드

2’의 북미 버전 영화다.

또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에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재탄생되었다.

‘데드폴’ 라이언 레이놀즈와 ‘어벤

저스’ 시리즈의 사무엘 L.잭슨이 주연을 맡았다. ‘킬러의 보디가드2’는 미치광이 킬러 다리우스의 경호를 맡은 후매일 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보디가드 마이클 앞에 한층 더 골 때리는 의뢰인이 더해지면서 벌어지는 영화다.

전주영화제 대상작 ‘갈매기’ 오는 28일 개봉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2020) 한국경쟁부문 대상작 ‘갈매기’가 이달 관객들을 찾아온다.

‘갈매기’는 일평생 스스로를 쟁겨본 적 없는 엄마 ‘오복’이 성폭행을 당한 후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편견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을 담았다.

주인공 오복을 지탱하는 삶의 한 축인 경제 공동체 수산시장과 그가

세상의 편견 맞서 목소리 내는 영화

헌신으로 일군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 속에서 두 발 딛고 일어서는 투쟁의 과정을 오롯이 그린다.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2018년 상반기에 기획됐다. 이번 영화로 장편 데뷔에 나선 김미조 감독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에 대해 “오복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 묘사를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오복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해 나가는지에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평범한 수산물 시장 상인인 소시민이자, 세 자매의 엄마로 살아온 한 중년여성의 피해와 복수를 넘어선 극복의 서사를 강조한다.

영화 ‘뷰티풀 선데이’에서 야구르트 아줌마 역으로 얼굴을 알린 데뷔 24년 차 배태랑 배우 정애화가 주인공 오복을 연기했다.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비롯해 제68회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제28회 함부르크영화제, 제36회 바르샤바국제영화제 등 국내외의 유수의 영화제에 진출하며 주목받았다.